

■ 박근종 칼럼

## 한국 청년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국가가 직시하고 일자리 창출을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갈수록 사라지고 좌절과 불안의 자화상이 청년의 대명사가 되는 현실이 가슴을 아 뜨게 한다. 불안하고 지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민낯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청년(19~34세) 인구는 2024년 기준 1,040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은 20.1%로 2000년 기준 1,288만 3,000명으로 28.0%에서 7.8%포인트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혼자 사는 청년의 비율은 2024년 25.8%로 2000년 6.7%에서 5년 새 19.1%포인트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청년(19~34세) 중 혼자 사는 비율은 2000년 6.7%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24년 25.8%로 2020년 20.5%에서 4년간 5.3%포인트 증가해 4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30대 초반 남성의 미혼율은 74.7%였으며, 여성은 58%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보다 많이 증가한 수치다. 여성의 초혼 연령 역시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에는 여성의 첫째 아이 평균 출산연령이 33.1세로 나타났다. 2024년 19~34세 청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으로 전년보다 1.3명 증가해 13년 새 최고이며, 육체적·정신적 무기력에 빠지는 ‘번 아웃(Burn out | 심신 탈진)’을 경험한 청년(19~34세)이 2024년 기준 32.2%로 3명 중 1명 꼴에 달한다. 빛은 소득의 1.7배나 되고 19~34세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7.6%로 전체 인구(14.9%)보다 낮다. 19~34세 청년층 삶의 만족도는 2024년 기준 10점 만점에 6.7점에 그쳤으며, 특히 15~29세 청년층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문다. OECD 평균(6.8점)보다 0.3점이나 낮은 수준이다. 리투아니아가 7.8점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미국 6.4점, 일본 6.2점 등이 있었다. 꿈과 열정으로 활기차야 할 청년들이 불

안과 피로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다.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29세 12.7%, 30~39세 13.0%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품고 보듬는 해법을 찾는 정책이 화급하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2월 16일 건강·여가·고용·임금·주거 등 12개 영역의 62개 지표를 계량화해 펴낸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청년들의 삶을 다(多) 각도로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나온 보고서다. 지표 하나하나에 청년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 우선 지난해 19~34세 청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늘었다. 2011년(25.7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 아웃’ 경험 청년은 32.2%에 이르렀다.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은 그 비율이 33.3%로 더 높고, 2022년 30%보다 심각해졌다. 청년들이 ‘번 아웃’을 느낀 이유는 ‘진로 불안’이 39.1%로 가장 많고, 업무 과중, 일에 대한 회의감 순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 답을 한 비중이 커 취업난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취업을 못 해 불안하고 취업에 성공해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가 36%에 그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거 사정도 청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같은 비주택 거처에 사는 청년 비율은 5.3%로 7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청년은 이 비율이 5.7%로 더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7명이 일자리와 소득에 불만을 나타냈다. 외로움과 결혼 기피, 빚 증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자립의 기반이 필요하고 결국 양질의 일자리 매칭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고용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5~29세 고용률은 1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구직 활동을 이어 멈춘 ‘쉬었음’ 청년도 줄지 않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2월 10일 배포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15

~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49만 1,000명으로 고용률은 44.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취업자 수 386만 8,000명보다 17만 7,000명이나 줄고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 45.5%보다 1.2%포인트 감소했고, 실업자이거나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로서 일할 의향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2030 인구가 16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느끼는 청년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이 있어야만 내 집도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도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니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단순 고용 지표나 경제 성장의 수치로만 볼 일은 결단코 아니다. 일은 꿈을 현실로 바꾸는 도전의 시작이고, 노력하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최소한의 희망이다. 그런 삶의 기본 조건이 멀어지고 무너지면 체념만 커갈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무기력한 사회에서 국가의 미래는 의당(宜當) 밝을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에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이유다.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 10명 중 7명이 일자리와 소득에 불만을 나타냈다. 외로움과 결혼 기피, 빚 증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자립의 기반이 필요하고 결국 양질의 일자리 매칭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함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에서부터 출발하고 고질화(痼疾化)하는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 엇박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신규 채용 시 기업 ‘인센티브(Incentive)’ 부여 강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의 투자 및 채용 여력을 키울 규제 개선도 신속히 이어져야 한다. 청년이 일터에 남을 수 있도록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Work-Life Balance’의 직장 문화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청년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별 유념해야만 한다.

청년 고용 여건은 최근 통계에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41만 6,000명에 달했고, 30

~39세는 26만 1,000명에 이르러 실직, 취업 준비, ‘그냥 쉬었음’ 상태로 ‘일자리 밖’에 내몰린 2030 청년이 160만 명에 육박했다. 코로나 시기인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이고, 전체 2030 인구의 12.7%에 달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67만 7,000명을 기록한 건 취업 희망마저 접은 최악의 신호다. 저성장이 고착화(固化)돼 일자리 창출이 줄어 들고, 대기업마저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그늘수庫 바늘구멍 같은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운 청년들은 계속 서울로 몰려들며 이들의 주거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고시원·숙박업소·판자집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청년 가구주 비율은 5.3%였고, 수도권에서는 그 비율이 5.7%로 더 높았음도 눈여겨볼 일이다.

한편 인공지능(AI)이 개발뿐 아니라 범무, 재무·회계 업무도 척척 해내면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입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대기업들은 희망퇴직 등을 활용하며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자 직역에서 시작된 AI(발령) 일자리 지각변동이, 사회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국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인원은 2022년 206명에서 올해 227명으로 3년 만에 약 30% 감소했다. 청년 세대 일자리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피지컬 AI(Physical AI)’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AI를 가장 빠르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세대는 오히려 젊은 층이기 때문이다. AI 클라우드 1위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맷 가먼(Matt Garman)’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2월 16일(현지 시각)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Wired)와 인터뷰에서 “AI로 신입직원 대체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기 비용 절감보다 장기 인재 육성이 기업과 사회 모두에 이익이라는 의미이다. 청년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놓고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기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 충남·경기 ‘베이벨리 상생협력 사업’ 순항

GTX-C 충남·경기 연장 국가계획 반영 정부 건의 등 대응

베이벨리 투어패스, 해양쓰레기 공동관리 등 초광역 협력 성과 창출



충남도와 경기도가 베이벨리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추진 의지를 밝혔다. 도는 23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장과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경기 베이벨리 상생협력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추진상황 보고,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된 보고회를 통해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인 충남·경기 베이벨리 상생협력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도와 경기도는 2022년 9월 29일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한데 이어 올해 3월 21일 상생협력사업 공동보고회를 통해 13개 협력사업을 최종 확정된 바 있다. 13개 사업은 △베이벨리 순환철도망 구축 △서해선-경부고속선(서해선 KTX) 연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경기-충남 연장 △제2서해대교 건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부권 수소공급 허브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 생산기술개발 공동 연구 △미래차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마리나 관광거점 기반 조성 △해양레저 콘텐츠 개발 및 이벤트 개최 △베이벨리 투어패스 개발 △해양쓰레기 공동 관리 △베이벨리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중 베이벨리 일대 방문자에게 일정 시간 관광지와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베이벨리 투어패스’는 지난 5월 개발해 운영 중이다. 가맹점은 10개 시군에 182곳, 판매량은 1만 4600매에 달한다. 서해안권 해양환경을 위해서는 6월 안산 풍도, 10월 당진 대난지도에서 각각 해양쓰레기 52톤을 수거해 처리했다.

홍성-평택-천안-홍성으로 144.8km를 순환하는 ‘아산만 순환철도’는 당초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따라 2035년까지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에 기존 노선 활용 방안을 제안해 11년 앞당긴 2024년 11월 개통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서해안 지역에 최초로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나머지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조기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베이벨리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초광역·초대형 사업이다.

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428만 명, 기업 32만 개, 대학 37개가 밀집해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250조원에 달한다.

이 지역은 삼성과 현대, 엘지(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반도체와 미래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도는 베이벨리 사업을 통해 2020년 기준 세계 48위 국가 수준의 지역 내총생산을 20위권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장은 “도와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산업수도, 베이벨리’라는 비전 아래 협력하기로 한 부분은 ‘상생발전’의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 베이벨리가 초광역 협력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베이벨리 상생협력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초광역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초광역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승기천 수질, '1등급'으로 복원

인천의 대표 생태 하천 승기천 수질이 1등급으로 상향했다. 인천 연구진은 승기천 수질개선 사업으로 지난 2023년 2월 3등급이었던 수질이 1등급으로 대폭 향상됐다고 23일 밝혔다. 구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올해 ‘승기천 월별 생태학적산소요구량(BOD)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승기천의 BOD는 1.9mg/l로 1등급 수질을 기록한 뒤 현재까지 연속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구는 승기천 수질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구는 물길 복원과 붕괴한 호안 정비, 퇴적물 제거, 유지용수 개선 등 악취와 수질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자연적 여율을 재조성해 하천 물길을 회복시키고 처리가 어려웠던 승기 2교 부근 퇴적물 등 20여톤을 특수 공법을 활용에 처리했다.

## 487만 발길 이어진 '빛의 향연'... 〈2025 서울윈터페스타〉"진짜 축제는 지금부터"

서울윈터페스타, 개막 10일 만에 누적 관람객 487만 명 돌파...철저한 안전 관리로 무사고 순항  
광화문 마켓 ‘루돌프 회전목마’·청계천 ‘서울빛초롱축제’ 등 도심 곳곳이 핫플...시민 발길 이어져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 외신 “겨울철 꼭 가봐야 할 도시”...K-컬처 입은 서울시 집중 조명



서울시가 주최하는 초대형 도심 겨울 축제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개막 10일(25.12.12~12.21) 만에 누적 방문객 487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도심 6개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가 연일 구름인파로 북적이고 있음에도, 철저한 안전 관리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현재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의 흥행은 화려한 미디어아트와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이끌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광

화문과 청계천, DDP 등 축제 현장을 담은 인스타그램 #서울윈터페스타, #서울야경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실시간으로 쏟아지며 ‘겨울철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 (광화문광장) ‘광화문 마켓’은 동화같은 분위기와 함께 ‘루돌프 회전목마’가 최고의 사진 명소로 꼽히며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는 마켓을 즐기고 사진을 찍으려는 대기 줄이 길게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는 중이다. ○ (청계천) ‘서울빛초롱축제’는 도심 속 물길을 따라 빛의 산책로를 즐기려

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형형색색의 등불과 빛 조형물이 겨울밤의 운치를 더하며 가족·연인 단위의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DDP) ‘서울라이트 DDP’에서는 귀여운 캐릭터와 크리스마스 오브제를 압도적인 미디어아트로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어울림광장-팔거리-잔디언덕을 잇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타운은 외국인 관광객과 MZ세대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았다. 〈2025 서울윈터페스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 유력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겨울 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미국(AP통신 등), 중국(신화통신), 대만(중앙통신사 등) 주요 외신들은 서울 동향을 화려하게 수놓은 미디어아트와 현장을 가득 메운 인파를 생생하게 전하며, 서울을 ‘겨울철 놓치지 말아야 할 매력적인 관광지’로 집중 조명했다. 시는 축제의 열기를 이어, 남은 연말 연시 기간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하이라이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겨울 낭만을 즐기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8일(일)까지 운영되며, 크리스마스인 25일(목)에는 청계천 일대에서 화려한 ‘커리퍼레이드’가, 광화문광장에서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 결선 무대가 진행된

 <b>세계타임즈</b>	www.thesegeye.com 기사제보: news@thesege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귀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 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 A 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